

FIP-2010-0013 (통권 제179호, 2010. 11. 01)

2010년 3/4분기 산업동향 및 4/4분기 전망

ISSUE
PAPER

Contents

< 요약 >

I. 전 자	1
II. 자동차	3
III. 조 선	6
IV. 철 강	8
V. 석 유	10
VI. 일반기계	12
VII. 전기기기	14
VIII. 섬 유	16
IX. 시멘트	18
X. 건 설	20
XI. 유 통	22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산업정책팀 윤경수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3771-0674 FAX : 6234-5373 E-mail : kyungsoo.yoon@fki.or.kr

● ● ● 요약 ● ● ●

- **[2010년 3분기 동향]** 대부분의 업종이 수출호조를 보였으며, 내수는 지난해 동기대비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자, 일반기계, 전기기기 등의 업종이 수출에 힘입어 호조를 보임
 - **(전자)** 국내 브랜드의 해외정착에 힘입어, 스마트폰, IT전자제품, 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고, 내수 시장 역시 고가 스마트폰, LED TV 등이 수요를 견인하면서 늘어남
 - **(자동차)**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가운데, 신차효과로 3분기까지 누계내수는 9.6%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 수출은 국산차의 품질향상과 신차 출시 등에 힘입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
- *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수출단가도 11,917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5% 상승함

산업별 3분기 실적 및 4분기 전망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구분	생산		내수		수출		종합경기	
	2010년 3분기	2010년 4분기	2010년 3분기	2010년 4분기	2010년 3분기	2010년 4분기	2010년 3분기	2010년 4분기
전자*	16.1	15.3	2.7	1.3	24.8	22.6	☀	☀
자동차	9.5	-3.8	0.6	-13.4	20.3	0.0	☀	☁
조선	9.3	-10.5	-	-	26.7	-26.9	☀	☂
철강	8.6	10.8	5.0	2.5	15.0	11.5	☀	☀
석유	3.0	6.0	3.9	-4.9	17.4	12.3	☁	☀
일반기계*	8.7	7.7	8.4	7.0	24.9	8.6	☀	☀
전기기기*	13.0	14.0	14.6	15.8	21.2	10.0	☀	☀
섬유	4.8	-0.6	4.0	2.1	13.8	7.7	☁	☁
시멘트	-7.9	4.2	-12.1	6.2	69.8	34.1	☂	☁
건설*	3.1	-10.7	-	-	-	-	☁	☂
유통*	-	-	6.4	3.0	-	-	☀	☁

주 : 1) ☀: 5% 이상/ ☁: 0%이상, 5%미만/ ☁: 0% 미만, -5% 이상/ ☂: -5% 미만
 2) *표시는 금액기준, 나머지는 물량기준(각 업종단체 자료 종합), 건설은 국내공사 수주금액 (경상가격), 유통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의 합계 기준

- **(조선)** 그동안 인도가 지연되었던 고부가가치선박들의 인도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3분기 수출실적은 급격히 상승
- * 3분기 수출실적은 기존 하반기 수출 예상치인 19,949백만 달러의 절반인 9,975백만달러를 초과한 12,00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도 전분기보다 12.7% 증가함

● ● ● 요약 ● ● ●

- **(철 강)** 자동차, 가전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가 상승분을 철강업체들이 자체 흡수한 것과 더불어 건설·조선의 지속적인 침체가 악재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경기는 둔화되고 있음
 - **(석 유)**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의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유가가 상승하여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임
 - * Dubai유 기준으로 유가가 배럴당 17.4% 상승하였고, 물량도 4.3%가 늘어나 금액기준 전체 수출은 17.4% 증가함
 - **(일반기계)** 기저효과가 남아있는 가운데, 국내외 기계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중국과 아세안과 같은 신흥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건설광산기기는 141.9%, 반도체제조용 기계는 126.6% 증가하며 수출을 주도
 - **(전기기기)** 자동차, IT, 정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기기기에 대한 내수 수요가 증가하였고, BRICS와 같은 신흥국들과 중동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임
- **[4분기 전망]** 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 브라질 등 신흥 시장이 수출 수요를 견인할 전망
-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수요도 둔화될 전망이 우세. 하지만, 중국, 동남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경제 발전이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 또한, 원화가치 상승에 의해 일부 업종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존재
 - 업종별로 보면, 전자, 일반기계, 전기기기의 선전이 지속되고, 석유의 실적이 좋아질 전망
 - * 전자: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2.6% 증가해 3분기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 철강: 신흥국 수요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10.8%의 생산 증가를 전망
 -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전년동기의 기저효과와 노후차 교체지원책이 끝나, 전년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임
 - * 자동차: 내수는 전년동기보다는 13.4% 감소하겠지만, 3분기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며 수출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662천 대를 기록할 전망

● ● ● 요약 ● ● ●

- 조선은 1~3분기까지 기존 스케줄보다 빠르게 선박인도가 이루어진 결과, 4분기 수출과 생산은 전년동기보다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전체로는 당초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하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임
 - * 분기 수출 예상은 전년동기 대비 26.9% 감소이지만, 하반기 전체로 본다면, 기존 전망인 19,949백만 달러(6월 예상) 2.4% 증가한 20,435백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 하반기 생산실적 역시 2009년 하반기 실적인 3,879천 CGT와 큰 차이가 없는 3,856천 CGT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은 4분기에도 부진할 전망이다 반면, 시멘트는 수출과 더불어 내수도 늘어나며 생산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 시멘트: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에 주력하여 전년 동기 대비 34.1% 증가한 1,680천 톤의 수출 예상

업종별 2010년 4분기 기상도(전년동기 대비)

구 분	☀(맑음)	☁(보합 및 호전)	☔(다소 흐림)
경 기	전자, 철강, 석유, 일반기계, 전기기기	자동차, 섬유, 시멘트, 유통	조선, 건설

주: 1) 경기 전망은 업종별 생산량 전망을 토대로 본회가 전망

□ [업종별 경기 사이클]

- **(전자)** 수출IT기업을 중심으로 IT경기가 호조를 지속.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금년말 다소 둔화될 것이 우려되지만, 침체로 갈 정도는 아니며,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민간소비지출과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 내수시장의 호조세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서유럽, 신흥국의 수요증가세가 둔화될 뿐 아니라, 국산차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출 감소가 예상
- **(철강)** 글로벌 철강수요의 주요축인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율 감소와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심화가 예상되나,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경기호조 지속 및 국내 신증설 설비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완만한 회복 예상

● ● ● 요약 ● ● ●

- **(석유)**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경제발전으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하여 당분간은 호조국면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미국·유럽의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더블딕)할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
- **(일반기계)** 경기호조에에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부터는 그동안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치적인 지표들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임. 2011년 2분기부터는 환율 하락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을 할 것으로 보임. 해외경기 사이클도 하강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 **(전기기기)** 환율 하락 리스크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자원부국들의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수주잔고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향후에도 호조세 지속 전망
- **(시멘트)**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2011년에는 경기연착륙을 위하여 미국 등을 중심으로 출구전략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됨. 현재 부동산 경기의 불황과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경기의 바닥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4대강 사업' 등 정부 주도의 주요 국책사업이 재개되고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2011년 하반기부터는 건설경기가 조금씩 호전될 전망
- **(건설)** 2008년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미분양주택이 급증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에 빠져 국내건설 수주액 감소세가 지속됨. IMF 외환위기 당시, 건설수주액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4년 정도가 소요되었던 점과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 미분양 주택 감소세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2분기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유통)** 환율하락으로 엔, 위안화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질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요 감소가 우려됨. 또한 2006~7년처럼 내국민의 해외여행 증가로 국내 백화점 시장의 위축 가능성도 존재.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역자산효과가 발생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능력이 저하되고, 공공요금 인상, 금리인상 등 소비에 부담스러운 잠재 요인도 있어, 내년 이후 어려워질 전망

● ● ● 요약 ● ● ●

업종별 경기 사이클 상 현재 위치와 전망

구분	현재 위치	향후 전망
전 자		
자동차	2009년 3분기 이후 호조	2011년 4분기 이후 침체 예상
조 선	2010년 3분기 이후 호조	
철 강	2010년 3분기 이후 침체	2011년 1분기 이후 회복 예상
석 유	2010년 1분기 이후 호조	
일반기계		2010년 4분기 이후 둔화 예상
전기기기	2010년 2분기 이후 호조	
섬 유	2009년 4분기 이후 호조	2010년 4분기 이후 침체 예상
시멘트		2010년 4분기 이후 침체 예상
건 설	2008년 1분기 이후 침체	2011년 2분기 이후 회복 예상
유 통	2009년 2분기 이후 호조	2011년 이후 침체 예상

1. 전 자

1. 수급관련동향 및 전망

부문	단위	2009년 3/4기	2010년 3/4기	증감율 (%)	2009년 4/4기	2010년 4/4기(E)	증감율 (%)	
생산	생산실적(A)	조원	57.6	66.9	16.1	59.2	67.4	15.3
판매	내수판매	조원	43.9	45.1	2.7	45.3	45.9	1.3
	수출실적	억 달러	332.9	415.5	24.8	350.4	429.8	22.6
수입	제품수입	억 달러	170.7	195.3	14.4	168.6	197.7	17.2
채산성					호전		호전	
종합경기					호전		호전	

2. 2010년 3/4분기 산업경기의 특징 및 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66.9조원, 16.1%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호조에 힘입어 생산 증가 - 중국, 미국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였고, 일부 전자부품 역시 수출이 늘어나며, 전반적인 생산 증가 -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생산국인 디스플레이의 생산이 증가한 반면, 휴대폰은 현지생산이 늘어남
내수 (45.1조원, 2.7%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과 LED TV의 수요 증가 - 노트북으로의 수요 전환세 지속
수출 (415.5억 달러, 24.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스마트폰 수출 호조 - 기업용 PC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 증가 - 국내 완제품 IT기업 브랜드의 해외정착에 힘입어 국내 전자부품의 품질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현지생산에 소요되는 전자부품의 수출도 호조
수입 (195.3억 달러, 14.4%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PC 생산기반이 없는 관계로 국내 PC수요 증가가 수입증가로 이어짐 -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교열위로 해외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 증가세 - 해외 현지공장에서 국내로 반입 증가
채산성	- 수출 호조로 말미암아 국내 IT산업의 채산성이 양호한 상태 지속
종합경기	-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나타나며 기업경기 양호

3. 2010년 4/4분기 산업경기 전망의 호조 및 부진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67.4조원, 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성수기 수출 증가로 인해 생산증가세 지속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은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국가의 경제 확장세 지속되면서 생산 증가 - 휴대폰 등 해외 현지생산 증가로 국내생산 비중 약화
내수 (45.9조원,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호황으로 수출제품에 소요되는 전자부품류의 수요 증가 예상 - 반면, 내수용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비교적 저조하여 수요 약세 - 스마트폰, LED TV 등 새로운 모델의 시장은 강세 지속 - 가계부채, 실업, 노령화 등의 수요 감소요인이 있음
수출 (429.8억 달러,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연말 성수기 진입, 국산 IT브랜드 인지도 상승, 해외 소비자 니즈에 신속히 대응한 시장 선점, 중국의 가정보조금 정책 확대, 신흥국들의 한국산 선호 등의 호조 요인이 있음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 제품은 공급과잉 우려로 가격 약세
수입 (197.7억 달러, 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 - 원화 강세로 수입을 상대적으로 선호, 원화 강세지역으로 수입선 전환 움직임 - PC, 음향기기류는 국내기반 부족으로 수입증가세 지속 - 대중소기업의 상생 강화로 국산 전자부품소재 수요 증가 - 국산 전자부품의 품질, 성능이 향상되며 경쟁력 강화
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IT기업들의 채산성 유지 예상
종합경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과 수출의 선전이 지속되면서 IT시장은 양호한 경기 지속 전망 - 반면, 일부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경기의 양극화로 말미암아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면도 있음

Ⅱ. 자동차

1. 수급관련동향 및 전망

부문	단위	2009년 3/4분기	2010년 3/4분기	증감율 (%)	2009년 4/4분기	2010년 4/4분기(E)	증감율 (%)	
생산	생산실적(A)	천대	912	999	9.5	1,071	1,030	-3.8
	생산능력(B)	천대	1,200	1,200	0.0	1,200	1,200	0.0
	가동률(A/B,%)	%	76.0	83.3	+7.3p	89.3	85.8	-3.5p
판매	내수판매	천대	349	351	0.6	425	368	-13.4
	수출실적	천대	548	659	20.3	662	662	0.0
수입	제품수입	천대	16.1	21.5	33.5	20.5	22.6	10.2
채산성	-	-	호전	-	-	전년수준	-	
종합경기	-	-	호전	-	-	전년수준	-	

2. 2010년 3/4기 산업경기의 특징 및 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p>생산 (999천 대, 9.5%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 누계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26.9% 증가 ○ 세계 자동차시장의 수요회복, 신모델 투입확대, 엔고에 따른 국산차 가격 경쟁력 상승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회복세, 신차효과 등으로 내수도 증가세 ○ 자동차 5사 무분규 임단협 타결로 파업에 의한 생산차질이 없었음 * 승용차가 27.9% 증가, 트럭 11.7% 증가, 버스도 32.7% 증가
<p>내수 (351천 대, 0.6%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 누계 내수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9.6% 증가했으나, 3분기 증가세는 둔화 - 전반적인 경기회복세 및 소비심리 상승, 신차출시, 잠재대체수요의 증가 등 호조 요인 존재 * 신차효과: YF쏘나타, 투싼ix, K7, K5, 스포티지R, SM5신형, 마티즈신형, 알페온 등 ○ 차급별로는 경형 22.5%, 중형 35.9%, SUV 7.9% 증가 - 중형차급 시장의 현대 YF쏘나타, 기아 K5, 르노삼성 SM5 등 신차경쟁으로 이 시장이 최대차급으로 부상 * 시장점유율: 현대 44.9%, 기아 33.2%, 르노삼성 11.1%, 지엠대우 8.2%, 쌍용 2.1%
<p>수출 (659천 대, 20.3%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 누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4.4% 증가한 1,998,000 대로 높은 증가세 지속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수요 증가세, 국산차의 지속적인 품질 및 신뢰도 향상, 신모델 투입 확대, 월드컵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인지도 향상 등이 증가요인 - 현대 24.0%, 기아 28.0%, 지엠대우 49.9%, 르노삼성 119.6%, 쌍용 349.5% 증가 - 르노삼성은 기존 유럽에다가 중국, 중동에서의 오더 증가 ○ 국산차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으로 수출단가 상승세 지속 - 금년 수출단가 11,917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5% 상승 - 완성차 수출금액도 25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6.2% 증가
<p>수입 (21.5천 대, 33.5%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차판매는 1~3분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45.3% 증가 -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세 - 일본차는 엔고, 리콜사태 등으로 상대적으로 부진 ○ 수입차 판매확대 요인 - 신차투입 확대, 중저가모델 도입 확대, 판촉활동 강화
<p>채산성</p>	<p>호전</p>
<p>종합경기</p>	<p>호전</p>
<p>최근 현안이슈 및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자 급여금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 '10.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노사관계 정립 - 정부는 새로운 제도정착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실시 - 노조는 법을 위반하는 무리한 요구자제, 회사는 노조의 편법적 요구 수용 거부

3. 2010년 4/4분기 산업경기 전망의 호조 및 부진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1,030천 대, 3.8%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 예상 - 가동률은 85.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신차(베르나 및 그랜저 후속모델, 알페온, 시보레 올란도 C200 등) 생산 본격화 ○ 해외생산을 통한 주요시장 공급확대로 수출 확대는 한계
내수 (368천 대, 13.4%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기 대비 13.4% 감소 예상(전분기 대비 4.8% 증가) - 경기회복세와 신차효과의 지속 등으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작년말 노후차 교체지원책 마감으로 판매가 급증해 전년동기 대비로는 소폭 감소 예상 - 현대의 베르나, 그랜저 후속모델, 지엠대우의 알페온, 시보레 올란도, 쌍용 C200 등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며 신차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높은 유류가격의 지속과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부정적 요인
수출 (662천 대,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기 수준인 662,000 대 예상(전분기 대비 0.5% 증가) - 서유럽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 수요 회복세 지속 - 특히 중동, 중남미, 동유럽의 신흥시장 회복에 따라 국산차 수출주문 증가세 - 신차품질평가, 소비자만족도평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국산차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 엔고, 도요타/혼다 차량의 대량리콜 등으로 일본차판매의 상대적인 부진 예상 ○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호조세 지속 예상 - 이란과의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수출중단 사태 - 유럽발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 현대, 기아의 해외생산 공급 확대(연간 2,500,000 대 예상)
수입 (22.6천 대, 10.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00 대로 고수준 지속예상(연간 90,000 대 예상) - 벤츠, 폭스바겐, BMW, 아우디 등 독일업체의 신차투입 및 환율조건 호전에 따른 가격인하로 판매확대 전략 - 일본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 스바루 등은 엔고 등에도 불구하고, 판매확대 전략 추진 ○ 서비스망 확대, 차별적 판촉활동 등 판매 관련 투자 확대 - 저가모델 투입 및 A/S센터 점진적으로 확대
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부문에서의 채산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판매량 감소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수준 예상
종합경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수준

Ⅲ. 조 선

1. 수급관련동향 및 전망

부문	단위	2009년 3/4기	2010년 3/4기	증감율 (%)	2009년 4/4기	2010년 4/4기(E)	증감율 (%)
생산실적 ¹⁾	천CGT	3,528	3,856	9.3	3,351	3,000	-10.5
수출실적	백만 달러	9,474	12,007	26.7	11,530	8,428	-26.9
채산성				호전			전년수준 (소폭악화)
종합경기	생산,수출			호전			악화
	수주			호전			호전

2. 2010년 3/4분기 산업경기의 특징 및 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3,856천 CGT, 9.3%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기 대비 9.3% 증가한 385만 CGT로 추정 ○ 해운시황이 회복되며 계선선박이 인도되고 선박건조가 원활하게 진행
수출 (12,007백만 달러, 26.7%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기 대비 26.7% 증가한 120억 달러(잠정치) 달성 예상 ○ 호황기에 수주한 고부가가치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LNG선, Drillship 등)들이 지속적으로 인도되고 있어, 연도별 1~9월 수출액 중 최고수준 기록
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호조와 후판가 안정으로 채산성 향상 - 선가는 금년 1분기에 저점을 통과하여 다소 상승
종합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10년 1~9월 수주량이 전년동기 대비 171%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시현
최근 현안이슈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말 현재, 한국은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3개 부문에서 근소한 차이로 중국에 이어 2위 - '03~'08년 간 3개 부문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유지 - 중국은 국적선 발주, 정부 주도의 공격적 선박금융지원 등을 통해 세계 3개 부문에서 세계 1위가 됨

1) 자료 : 클락슨

3. 2010년 4/4분기 산업경기 전망의 호조 및 부진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3,000천 CGT,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량은 전년동기 대비 10.5% 감소한 300만 CGT 전망
수출 (8,428백만 달러, -2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한 84억 달러 전망 - 1~9월 수출액이 연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4분기에는 수출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0년 전체로는 당초 수출전망치인 430억 달러보다 높은 443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황기에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들이 인도될 예정이고, 후판가가 안정되면서 채산성 향상 예상
종합경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계 경기회복 속도 둔화 및 미국의 더블딥이 우려되고, 다량의 인도예정물량 등을 감안할 필요 - 시기별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는 회복세를 분명히 보일 것으로 전망 ○ 조만간 한국의 주력분야인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부문에서 추가 발주가 예상되며, 해양플랜트 부문에서도 수주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IV. 철 강

1. 수급관련동향 및 전망

부문		단위	2009년 3/4기	2010년 3/4기(E)	증감율 (%)	2009년 4/4기	2010년 4/4기(F)	증감율 (%)
생 산	제품생산	천톤	15,363	16,685	8.6	16,104	17,847	10.8
	조강생산(A)	"	12,852	14,033	9.2	13,594	15,435	13.5
	조강능력(B)	"	16,174	17,260	6.7	16,174	17,260	6.7
	가동률(A/B,%)	%	79.5	81.3	-	84.1	89.4	-
판 매	내수판매	천톤	12,208	12,822	5.0	13,184	13,507	2.5
	수출실적	"	5,429	6,243	15.0	5,496	6,128	11.5
수 입	제품수입	"	5,569	6,005	7.8	6,461	4,385	-32.1
	채산성	-	크게 악화	악화	-	호전	전년수준	-
	종합경기	-	크게 악화	악화	-	호전	전년수준	-

2. 2010년 3/4분기 산업경기의 특징 및 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16,685천 톤, 8.6% 증가)	○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설비보수(포스코 포항 4고로 개수, 7~9월) 등 마이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3분기 초의 건설용 강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하였고, 작년 하반기 이후 신·증설된 설비의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세
내수 (12,822천 톤, 5.0% 증가)	○ 부동산 등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지만,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수요산업의 생산 활동이 견조세를 유지하며 내수도 전년동기 대비 증가 ○ 가격인상을 감안한 일부 철강제품의 가수요 발생으로 증가세 유지
수출 (6,243천 톤, 15.0% 증가)	○ 주요국 철강생산 증가에 따른 세계시장의 공급이 늘어나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철강업체의 해외 현지공급망 확충에 따른 소재수출 증가와 수출 증대 노력, 엔고 등에 힘입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수입 (6,005천 톤, 7.8% 증가)	○ 국내 철강제품 가격인상 및 가수요 등에 따라 저가 대체재재로의 수입이 늘어난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증가세 지속
채산성	○ 제품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격 인상 폭의 상당부분 자체적으로 흡수하였고, 수요부진이 지속되며 채산성 악화
종합경기	○ 자동차·가전 등 일부 분야의 수요 견조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건설·조선 등의 침체 지속, 원가상승분의 자체 흡수, 기대 이하의 성수기 효과, 수입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는 하락세

3. 2010년 4/4분기 산업경기 전망의 호조 및 부진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p>생산 (17,847천 톤, 10.8%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조요인 - 신설비(포스코 광양 후판, 현대제철 C열연 등) 본격 가동 및 생산성 향상 * 포스코 광양 후판: 9월초 가동개시 (200만 톤/년) 현대제철 C열연: 9월 중순 본격가동(350만 톤/년) ○ 부진요인 - 국내외 경기 둔화국면 진입 예상에 따른 수요산업 경기저하 우려
<p>내수 (13,507천 톤, 2.5%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조요인 - 수요 산업인 자동차·가전의 견조세 유지 및 조선키경기 회복세 예상 ○ 부진요인 - 국내경기 성장세 둔화 및 수요 일단락에 따른 구입 축소 예상
<p>수출 (6,128천 톤, 11.5%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조요인 - 중국, 아세안, 중동 등의 경제성장 지속에 따른 수요호조, 해외 현지 공급망으로의 고정물량 확보, 수출선 다변화 노력, 엔고효과 등 ○ 부진요인 - 선진국 중심의 출구전략 실시 등 글로벌 경기 후퇴국면 진입이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
<p>수입 (4,385천 톤, 32.1%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조요인 - 중국·일본 등 수출 공세 강화에 따른 일반재 중심의 수입증가 우려 ○ 부진요인 - 국내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대체, 중국의 생산조정에 따른 수출 축소 효과 예상
<p>채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광석, 원료탄 등 원료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기수입된 고가 원료의 투입과 소재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원가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나, 제품가격 인상으로는 이어지기 어려워, 채산성은 약보합세 전망
<p>종합경기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수기(10~11월) 효과, 분기 후반부 이후 인하된 원료 투입에 따라 종합경기는 바닥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

V. 석유

1. 수급관련동향 및 전망

부문		단위	2009년 3/4기	2010년 3/4기	증감율 (%)	2009년 4/4기	2010년 4/4기(E)	증감율 (%)
생산	생산실적(A)	천b/d	2,450	2,524	3.0	2,501	2,650	6.0
	생산능력(B)	천b/d	2,905	2,905	0.0	2,905	2,905	0.0
	가동률(A/B,%)	%	84.3	86.9		86.1	91.2	
판매	내수판매	천b/d	1,996	2,074	3.9	2,209	2,100	-4.9
	수출실적	백만 달러	6,331	7,432	17.4	6,810	7,650	12.3
수입	제품수입	백만 달러	4,121	4,611	11.9	4,581	4,800	4.8
채산성				호전			호전	
종합경기								

2. 2010년 3/4분기 산업경기의 특징 및 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2,524천b/d, 3.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 - 주요 수출국인 중국, 동남아 국가 등의 경제 성장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하였고, 내수소비도 증가
내수 (2,074천b/d, 3.9%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 - 경기 회복으로 산업 및 민간부분 석유수요 증가 - 석유화학 경기 호조로 납사수요 증가
수출 (7,432백만 달러, 17.4%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기 대비 17.4%(금액기준) 증가 * 수출물량 증가(4.3%) 및 유가상승(68.0달러/b→74.0달러/b, Dubai) 영향 -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동남아 국가 등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석유소비 증가 - '09년 이후 북미, EU지역에서 노후 정제설비 폐쇄 → 공급감소
수입 (4,611백만 달러, 11.9%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 - 유가상승(68.0달러/b→74.0달러/b, Dubai) 및 석유화학 경기 호조로 납사 수요 증가
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동남아 국가 등의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이지역의 석유소비가 증가하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정제마진이 개선되어 채산성 호조
종합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동남아 국가 등으로의 수출호조와 정제마진 개선, 가동률 증가 등으로 경기 호조

3. 2010년 4/4분기 산업경기 전망의 호조 및 부진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2,650천b/d, 6.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조(상승)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동남아 국가 등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석유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정제마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도 등에서의 경유·등유 수요 회복 전망 - 2009년 이후 북미, EU지역의 노후 정제설비 폐쇄 ○ 부진(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산물량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정제마진 하락 - 납사 수요처인 석유화학 경기 악화 우려
내수 (2,100천b/d, 4.9%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조(상승)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가 회복되어 산업 및 민간부분 석유수요 증가 ○ 부진(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과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정책이 강조되어, 석유수요 감소 우려 -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내수 침체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 우려 - 석유화학 경기 불안에 따른 납사수요 감소 우려
수출 (7,650백만 달러, 12.3%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조(상승)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동남아 국가 등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석유소비 증가 - 인도, 베트남 등 역내 등·경유 수요 증가 ○ 부진(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구 전략의 본격화 및 생산물량 공급 급증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 - 납사 수요처인 석유화학 경기 악화 우려
수입 (4,800백만 달러, 4.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조(상승)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경기 호조로 납사수요 증가 ○ 부진(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석유화학 경기 둔화 우려 - 국내 소비 대비 과잉 생산시설 보유
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동남아 국가 등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석유소비 증가로 인한 수출호조, 정제마진 개선으로 채산성 호조 전망
종합경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동남아 국가 등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석유소비 증가로 인한 수출호조, 정제마진 개선, 가동률 증가 등으로 경기 호조 예상

Ⅵ. 일반기계

1. 수급관련동향 및 전망

부문		단위	2009년 3/4기	2010년 3/4기	증감율 (%)	2009년 4/4기	2010년 4/4기(E)	증감율 (%)
생산	생산실적	십억 원	17,815	19,358	8.7	21,946	23,637	7.7
	생산능력	지수('05=100)	134.2	141.3	5.3	134.7	142	5.4
	가동률	지수('05=100)	80.1	110.9	38.5	88.9	110	23.7
내수	내수판매	십억 원	8,831	9,575	8.4	12,717	13,612	7.0
	수출실적	백만 달러	7,246	9,048	24.9	7,898	8,578	8.6
수입	제품수입	백만 달러	6,827	8,525	24.9	7,558	8,055	6.6
채산성		-	크게 악화	호전	-	크게 악화	호전	
종합경기		-	크게 악화	호전	-	크게 악화	호전	

2. 2010년 3/4분기 산업경기의 특징 및 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19,358십억 원, 8.7%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기계수요가 지속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평균가동률: 84.8%(7월) * '80년 1월 이후 최고 수준 * 국내기계수주: '09년(-11.8%) → '10년 2분기(24.2%) → 7월(-21.7%) ○ 중국의 건설투자가 확대되면서 수출용 건설광산기계 등의 생산 호조
내수 (9,575십억 원, 8.4%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의 전월대비 추세는 점차 떨어지는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특수산업용 기계, 영상음향, 통신기기 등 일부 업종의 기계류의 투자 감소 때문 * 설비투자: '09년(-8.2%) → '10년 2분기(24.5%) → 7월 (33.5%)
수출 (9,048백만 달러, 24.9%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아세안 등 신흥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3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24.9% 증가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계 7월 수출 증가율: 37.7% (33.5억 달러) * 건설광산기계: 141.9% (5.4억 달러) * 섬유기계: 57.3% (1.9억 달러) * 반도체제조용 기계: 126.6% (1.3억 달러) - 7월 국가별로는 중국(53.0%), 미국(39.3%), 독일(34.7%), 중남미(55.1%) 등이 주도
수입 (8,525백만 달러, 24.9%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은 수출 및 내수 호조에 따라 3분기 중 24.9%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설비투자 및 기계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계류의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투자 확대와 노후설비 대체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
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산성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200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부 문	특징 및 요인
종합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유럽 재정위기 등 경기 위축 요인이 있었으나 아직은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음.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종합경기는 “호조” ○ 단, 지표상 전년도 베이스가 낮았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음에 유의
최근 현안이슈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대만 ECFA 체결로 중국시장에서 일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것이 우려 ○ 엔고 진행으로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계류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으므로 마케팅 강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 ○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듯 기업의 애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 환율 하락에 대한 대응능력이 있지만, 환율이 너무 빠르게 떨어질 경우, 기업들의 대응능력이 크게 부족 (하락 속도 조절 필요)

3. 2010년 4/4분기 산업경기 전망의 호조 및 부진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23,637십억 원, 7.7%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수요 산업들의 설비투자가 양호할 전망 - 7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 대비 6.7% 상승 ○ 이란제재: 플랜트수주 감소에 따라 기계류 생산 둔화 우려 ○ 통계적 기저효과 소멸
내수 (13,612십억 원, 7.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등 일부 수요 산업의 재고 증가에 따른 생산조정 예상
수출 (8,578백만 달러, 8.6%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토목용 건설 중장비 기계류 등의 對신흥국 수출이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엔고 진행으로 일본 기계류 대비 우리나라 기계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엔고: 15년 만에 최고 기록 (9월 중순 달러당 83엔 수준) ○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우려 ○ 일부 품목에서는 중국 등 경쟁국과의 해외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중국-대만의 ECFA 협정 체결로 인해 중국시장에서 대만 기계류의 가격경쟁력 강화 전망 * 중국의 대만 기계류 수입관세 인하/철폐
수입 (8,055백만 달러, 6.6%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산업의 수출호조로 하반기에도 일반기계 수입 증가세가 유지 -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을 다소 늘이는 요인으로 작용 ○ 요소부품 등과 같은 전통적 열세 분야의 경쟁력이 약해 對일수입의존은 지속 ○ 전년도 동기 베이스가 높아짐에 따라 통계적 반사효과(기저효과) 점차 소멸
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채산성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 상품과 경쟁 심화로 소폭 호조에 그칠 것으로 전망
종합경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기 중 해외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일반기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다만 남유럽 재정위기와 남북긴장이 고조 가능성은 잠재적 위험요인

VII. 전기기기

1. 수급관련동향 및 전망

부문		단위	2009년 3/4기	2010년 3/4기	증감율 (%)	2009년 4/4기	2010년 4/4기(E)	증감율 (%)
생산	생산실적(A)	십억 원	7,484	8,457	13.0	7,865	8,966	14.0
	생산능력(B)	십억 원	10,077	10,907	8.2	9,887	11,096	12.2
	가동률(A/B,%)		74.3	77.5		79.5	80.8	
판매	내수판매	십억 원	7,411	8,490	14.6	7,715	8,932	15.8
	수출실적	백만 달러	2,047	2,480	21.2	2,354	2,589	10.0
수입	제품수입	백만 달러	1,988	2,614	31.5	2,225	2,559	15.0
채산성			악화	호전	악화	호전		
종합경기			악화	호전	악화	호전		

2. 2010년 3/4분기 산업경기의 특징 및 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8,457십억 원, 13.0% 증가) 및 내수 (8,490십억 원, 14.6%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생산 증가 - 자동차, IT 업계의 생산 증가로 설비투자 증가, 부품 수요증가로 호조세 - 정유업계가 내년 초까지 준공 계획으로 친환경, 고도화설비에 투자 중으로 수요 증가 - 건설 투자의 소폭 증가 유지로 인한 전력기기 수요 증가 - 국내수주현황: '09년(5.0%), '10년 2분기(18.0%), 7월(15.8%)
수출 (2,480백만 달러, 21.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2%증가한 8.9억 달러 기록(누계 55.2억 달러, 25.6%) - 전년도 해외수주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수출 호전 (2조 6340억 원, 41.2%) - 중국의 경기가 호전되고 있으며, 對인도 수출도 활발히 증가 - BRICS 등 신흥 경제국의 수요가 시장성장 견인 - 북미 및 서부유럽의 수요가 주춤하나, 중동 GCC 국가간 송전망 확충 등 SOC 투자 지속 ○ 주요 수출증가국: 중국(323백만 달러, 21.6%), 인도(50백만 달러, 225.3%), 쿠웨이트(47백만 달러, 813.0%) ○ 주요 수출감소국: 미국(66백만 달러, -19.0), 사우디아라비아(6백만 달러, -74.5%)

부 문	특징 및 요인
수입 (2,614백만 달러, 31.5%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및 수출호조세로 인한 핵심 부품 수입 증가 ○ 7월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27.5% 증가한 9.0억 달러 기록(누계56억 달러, 2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배전 기기 1.0억 달러, 7.4% 증가(누계 6.4억 달러, 19.4% ↑) - 산업용 기기 2.6억 달러, 15.0% 증가(누계 17.5억 달러, 20.6% ↑) - 전기부품 : 5.4억 달러, 39.4% 증가(누계 32.1억 달러, 30.4% ↑)
채산성	호전
종합경기	호전
최근 현안이슈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협정 양허 개정안과 관련하여 스위스에서 중전기기 4개 품목(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전선)의 양허를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외교통상부)에서는 양허를 검토하고 있음. 이 경우, 해외 선진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져 관련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

3. 2010년 4/4분기 산업경기 전망의 호조 및 부진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8,966십억 원, 14.0% 증가) 및 내수 (8,932십억 원, 15.8% 증가)	<p><긍정적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말 현재 수주 잔고액이 올해 들어 최고치 기록 중(5조5천억 원) ○ 기업설비 투자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금속(8.1%), IT전기·전자(7.6%), 자동차 운송장비(6.1%), 정유·석유화학(5.2%) ○ 자동차 생산 증가로 인한 부품 생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장 및 중국 브릴리앙스 생산라인을 광양에 구축 예정 ○ 정부 SOC 투자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집행률이 부진하여 하반기 감소율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p><부정적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종 투자가 감소 주택경기가 2011년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수출 (2,589백만 달러, 10.0% 증가)	<p><긍정적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경기회복으로 아시아 수출이 증가하고, 중남미·서남아 지역 투자 지속 <p><부정적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금융 제재로 인해 수출대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수출에 적신호 ○ 전년 기저효과 해소로 인해 큰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
수입 (2,559백만 달러, 15.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및 수출호조세로 인한 핵심 부품의 수입 증가 전망
채산성	호전
종합경기 전망	<p><긍정적인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하락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수주량 증가에 힘입어 연말까지 호조세 전망 <p><부정적인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가격 및 원화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해외 수출에 악영향

VIII. 섬유

1. 수급관련동향 및 전망

부문		단위	2009년 3/4기	2010년 3/4기	증감율 (%)	2009년 4/4기	2010년 4/4기(E)	증감율 (%)
생산	생산실적(A)	천톤	462	484	4.8	472	469	△0.6
	생산능력(B)	2005=100	78.5	78.0	△0.6	78.5	78.5	0.0
	가동률(A/B,%)	2005=100	100.1	105.5	5.4	100.8	103.5	2.7
판매	내수판매	십억원	7,595	7,900	4.0	10,380	10,600	2.1
	수출실적	백만 달러	3,049	3,470	13.8	3,149	3,393	7.7
수입	제품수입	백만 달러	1,299	1,588	22.2	1,263	1,453	15.0
채산성				전년수준			악화	
종합경기				전년수준			전년수준	

2. 2010년 3/4분기 산업경기의 특징 및 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484천 톤, 4.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전후방 산업의 호조, 국내 소비 경기의 회복으로 화섬사·직물/면사·직물 생산량 증가 ○ 비수기(휴가시즌)와 시즌 변경에 따른 생산품목 교체로 가동률은 일시적으로 다소 떨어졌으나 전반적인 오더 지속으로 활발한 생산활동 유지
내수 (7,900십억 원, 4.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기 회복세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짐 ○ 7월부터 의류 전품목을 대상으로 확대된 '오픈프라이스' 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격비교가 확산되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 확보 노력이 치열해 짐 ○ 국내 최초 직매입백화점(이랜드 NC)이 성공적인 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며 내수시장 호조세에 영향 * NC백화점 7월매출 : 180억 원
수출 (3,470백만 달러, 13.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인 계절적 비수기와 여름휴가 시즌으로 인해 다소 소강상태로 진행되었으나 활발한 오더 운영과 함께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수요증가가 지속되며 수출증가세

부 문	특징 및 요인
수입 (1,588백만 달러, 22.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생산기반 약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해외생산 제품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글로벌 SPA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에 따라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수입 증가세 확대
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섬원료, 원면, 면사 등의 섬유원료 가격 상승으로 업계의 채산성에 부정적 영향
종합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정한 세계 경기 동향에 따라 4/4분기보다는 전년수준 또는 소폭 하락세가 전망됨
최근 현안이슈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업계 인력난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낮은 인건비 등으로 만성적 인력난 - 현장 기술인력 및 고급인력 양성 부족으로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신기술 개발 차질 ○ 봉제업계의 취약한 대금결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봉제업체가 물품을 적기에 납품하고도 현금결제가 아닌 어음결제를 받아 항상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음

3. 2010년 4/4분기 산업경기 전망의 호조 및 부진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469천 톤, 0.6%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경기 불안감 확대로 수요 증가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 ○ 면방, 화섬 생산 설비 증설 및 개체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생산 증가 지속
내수 (10,600십억 원, 2.1%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업계의 SPA(제조직매업) 브랜드 및 패스트 패션의 확산으로 소비증가 ○ 국내생산 기반 약화, 패션업계의 해외소싱 확대에 따른 수입증가로 섬유소재 내수수요 감소세가 지속 예상
수출 (3,393백만 달러, 7.7%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생산국인 베트남을 비롯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수출 상승세가 예상되나 유럽, 미국 등은 경기둔화 전망으로 증가폭은 상반기 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
수입 (1,453백만 달러, 15.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의류용 섬유 및 기능성 섬유제품수요 증가로 재생섬유 중심의 화섬사 수입 증가 ○ 패션업계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 지속과 중저가 구매 증가 및 수입 의류 선호현상 등 의류제품의 높은 수입증가세 지속
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하락으로 업계 채산성에 부정적 영향
종합경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더블딥 우려 확대, 유가·원자재가 및 환율 불안 등 불확실성 대두

Ⅸ. 시멘트

1. 수급관련동향 및 전망

부문		단위	2009년 3/4기	2010년 3/4기	증감율 (%)	2009년 4/4기	2010년 4/4기(E)	증감율 (%)
생산	시멘트	천톤	12,646	11,647	△7.9	12,758	13,300	4.2
	크링카(A)	천톤	11,471	11,596	1.1	11,799	11,800	-
	생산능력(B)	천톤	15,638	15,638	-	15,638	15,638	-
	가동률(A/B,%)		73.4	74.2	-	75.5	75.5	-
판매	내수판매	천톤	12,587	11,064	△12.1	12,146	12,900	6.2
	수출실적	천톤	1,064	1,807	69.8	1,253	1,680	34.1
수입	제품수입	천톤	226	184	△18.6	282	240	△14.9
채산성			전년수준	악화		악화	전년수준	
종합경기			전년수준	악화		악화	전년수준	

2. 2010년 3/4분기 산업경기의 특징 및 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11,647천 톤, 7.9% 감소)	- 전년대비 강우량 및 강우일이 많은 날씨로 인한 기상여건 악화와 추석 연휴기간이 9월로 변경됨에 따른 국내수요 감소
내수 (11,064천 톤, 12.1% 감소)	- 공공 및 토목부문의 투자가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여건이 악화하고 추석연휴로 인해 수요 감소
수출 (1,807천 톤, 69.8% 증가)	- 내수 부진 타개 및 가동률 제고를 위해 수출에 주력 -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주요 수출대상국 외에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수출량 증가
수입 (184천 톤, 18.6% 감소)	- 국내 환율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 부진에 따라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전년동기 대비 18.6% 감소한 184천 톤 수입
채산성	- 하반기 내수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건설 수요의 감소와 부동산 경기의 불황 지속에 따라 채산성 악화

부 문	특징 및 요인
종합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부분은 민간건설부분의 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불황이 계속되고 국책 사업이 지연·감소됨에 따라, 수주량이 감소하고 수익성 악화 -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연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경영상황 역시 부진
최근 현안이슈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수요 감소에 따라 시멘트업체 간의 경쟁 심화로 경영실적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

3. 2010년 4/4분기 산업경기 전망의 호조 및 부진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생산 (13,300천 톤, 4.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 수입량 감소와 추석연휴기간 변경('09년10월 → '10년9월)에 따른 휴일 감소, 전년도 생산량이 '08년 동기대비 급감한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한 13,300천 톤 생산 추정
내수 (12,900천 톤, 6.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기의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휴일 감소에 따른 수급상의 영향으로 시멘트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한 12,900천 톤 전망 - 공공부문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민간주택의 경기회복도 불투명한 상황
수출 (1,680천 톤, 34.1%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기에도 3분기와 마찬가지로 시멘트 업체들이 내수 부진 타개 및 가동율 제고를 위해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4.1% 증가한 1,680천 톤 수출 전망
수입 (240천 톤, 14.9%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 등 4분기에도 수입 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년동기 대비 14.9% 감소한 240천 톤 수입 전망
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에 반등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4분기에도 내수 상황이 불투명하며 시멘트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채산성이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종합경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기 중에 건설경기가 바닥을 찍고 2011년에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원재료 및 유연탄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X. 건설

1.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부 문	구 분	2009년 3/4기	2010년 3/4	증감율 (%)	2009년 4/4기	2010년 4/4기(E)	증감율 (%)
건설공사 수주액(억원)	합 계	219,167	226,000	3.1	460,267	411,000	-10.7
	공 공	96,611	79,000	-18.2	170,396	176,000	3.3
	민 간	122,556	147,000	19.9	289,871	235,000	-18.9
	토 목	91,529	77,000	-15.9	172,374	178,000	3.3
	건 축	127,637	149,000	16.7	287,893	233,000	-19.1
종합경기			다소 호전		악화		

2. 2010년 3/4분기 건설경기의 특징 및 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건설 수주 및 생산 (총수주액 226,000억 원, 3.1%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발주 건설수주액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 지속, 감소폭은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3/4분기 공공부문 발주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8.2%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발전시설 등 일부 공종의 공사발주는 증가하였으나, - 도로 및 교량 등의 대부분 공종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히 LH공사, 지자체 산하 각 도시개발공사의 주택건설물량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급격히 감소 - 2010년 정부의 SOC예산 대부분이 기발주된 완성공사 위주로 배정되면서 신규 공사발주가 급감하였고, 공사물량 부족에 따른 업계의 체감 수주난은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부문수주액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3/4분기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물량 증가, 거시경제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9.9% 증가 - 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가시적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신규 주택건설이 거의 없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물량 위주로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전세난도 심화되고 있음 -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 전환, 할인매각 등으로 수도권 3개월 연속, 지방은 17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주택거래 활성화 등 주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함 - 올해 7월 결정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가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재건축/재개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

3. 2010년 4/4분기 건설경기 전망의 호조 및 부진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호조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조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 회복으로 민간토목 및 비주거용건축 점진적 회복세 지속 ○ 불확실성이 제거된 세종시 건설 본격 추진 기대 ○ 워크아웃 MOU체결 완료 등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 기대 ○ 미미한 수준이나마 미분양주택 물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부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악화에 따른 사업 위축 불가피 ○ 전세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 주택경기 회복 기대 난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사례로 볼 때, 국내경기회복과 신규 주택공급 증가까지는 1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했음 ○ 주택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위축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는 10월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

XI. 유통

1. 수급관련동향 및 전망

부문		단위	2009년 3/4기	2010년 3/4기	증감율 (%)	2009년 4/4기	2010년 4/4기(E)	증감율 (%)
판매	백화점	십억원	4,867	5,329	9.5%	6,404	6,670	4.2%
	대형마트	십억원	7,907	8,262	4.5%	7,932	8,100	2.1%
채산성				호전			호전	
종합경기				호전			호전	

2. 2010년 3/4분기 산업경기의 특징 및 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내수 (13,591십억 원, 6.4% 증가)	<p><백화점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매기 확대: 추석이 9월에 편입되어 동월 매출 급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매출 비교시 전년대비 18% 신장 - 사과, 배 등 과일의 품귀현상 속에서 한우가 매출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의 대체 선물로서 건강식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선물용품의 단가가 오른 것이 영향 - 현대 일산 킨텍스점, 롯데 광복점·청량리역사점 오픈으로 백화점 업계 활기 - 중국 여행객의 증가로 서울 도심 매장의 중국인 관련 매출 급증 - 7월부터 소비자 심리의 호조로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휴일수 증가 및 폭염의 영향으로 아웃도어와 스포츠용품 시장이 급신장 <p><대형마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은 상대적으로 짧은 장마와 폭염, 휴가철 영향으로 8.2% 고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아웃도어용품 강세 - 8월의 서울 강수일은 18.7일로 평년(12.6일)보다 6.1일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요인으로 인해 전월 대비 둔화된 3.9% 신장 기록 - 추석매출의 확대 -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형성장이 한계점에 다다름 2) SSM진출 부담과 지방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진출 시도
채산성	- 매출증가와 영업이익 대폭 확대
종합경기	- 소비자 심리 호조세 지속되면서 대형점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
최근 현안이슈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상반기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4월에도 영하 날씨를 보이는 등 이상기온이 지속되면서 과일·채소시장 수급 불안정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추' 쇼크 및 '무' 파동으로 연계

3. 2010년 4/4분기 산업경기 전망의 호조 및 부진요인

부 문	특징 및 요인
<p>내수 (14,770십억 원, 3.0%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이후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늘고, 고용지표와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민간소비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4/4분기에는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민간소비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특히, 3고 (원자재, 원화가치 상승, 금리상승)와 건설 경기 부진으로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가계의 가처분 지출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현실화와 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어 상품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백화점의 주력 고객인 고소득층의 추가적인 소비증대를 기대할 수 없음 ○ 온라인 시장의 확대 - 백화점과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마켓을 새로운 소비 영역으로 판단하는 백화점, 마트기업이 온라인 마켓 드라이브를 강력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자사 업체 간의 카니발라이제이션 발생이 우려되나, 중기적으로는 온라인 마켓이 새로운 시장으로 정착할 것임
<p>채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증가와 영업이익의 확대
<p>종합경기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소비지출은 상반기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나 백화점, 마트의 성장세는 지속 예상 - 전년과 같이 흑한·엄동 등의 이상기후 현상 발생시, 모피 등 고가 상품에 영향